# C-7. 하악 후구치부에서 치관연장술을 위한 새로운 방법

## New procedure for crown lengthening in retromolar area

**정철웅[1,2], 김수형[1,2], 정현주[2]**

[1]금남미르 치과병원, [2]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하악의 최후방 구치의 원심측의 치관연장술로는 치은절제술과 distal wedge procedure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런 두 술식은 후구치 원심측의 부착치은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동성의 비각화 조직이 재증식되어 충분한 임상치관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많은 양의 치조골 삭제시 치은 변연을 근단측으로 위치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Pollack(1980)은 distolingual, distobuccal 부위에 distal releasing incision을 주는 modified distal wedge procedure를 고안하였으며 하악 구치부에서 거의 각화조직이 없는 경우 가능한 각화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Z-plasty를 응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술식도 역시 "non-keratinized" alveolar mucosa만 있는 경우와 ascending ramus와 internal oblique ridge가 근접해 있는 경우 한계점이 있다.

**연구방법 및 재료**

하악 제2대구치 원심면 부위에서 많은 양의 치관연장술이 필요한 경우 원심측의 치은을 두 층으로 분할하여 상부 협측 판막은 근단변위판막술을 시행하고 원심측은 골막을 포함한 하부 판막을 박리하여 후방의 절단 변연과 봉합하는 새로운 술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많은 양의 치조골 삭제 후에도 충분한 양의 치관을 노출시킬 수 있었으며, 기존의 술식과 비교시 충분한 양의 각화치은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론**

하악 최후방 구치의 원심측은 섬유성 부착치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접근이 어려워 치관연장술 시행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위 중 하나이다. 기존의 여러 술식에 의해 치관연장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각화치은을 보존하기 어렵고, 많은 양의 골처치가 필요한 경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술식의 경우 각화치은을 보존하면서 충분한 양의 치관을 노출시킬 수 있어 하악 최후방 구치의 원심측 치관연장술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